

장성 축령산 편백숲 위를 거닌다

군, 10m 높이 '하늘숲길' 조성 길이 900m 데크길 연발 착공 전망대·쉼터 등도 함께 설치 새로운 관광 핫플레이스 기대

장성 축령산 편백숲에 나무의 중간이나 3분의 2 정도 높이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산책길이 만들어진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조립지인 축령산 편백숲 일원에 숲 위를 걷는 데크길을 새롭게 조성한다. '하늘숲길 조성 사업'이다. 올해말 착공이 목표다. 하늘숲길은 축령산 자유의 숲에서 대덕화장실 앞

공터까지 약 900m 거리를 편백숲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이어진다. 구간에 따라 최고 10m 높이에서 편백숲을 거닐 수 있다. 전망대와 쉼터 등을 함께 설치하고 계단 없이 안전한 경사도로 설계해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도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장성군은 올해 초부터 대상지 현황 조사를 마치고 전담반을 구성해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스키야에이 등 성공 사례를 참고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총 사업비는 38억원 규모이며, 10월 말 실시설계가 끝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0억원 규모의 산림청 '노령산맥권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의 하나로 시행된다. 장성군과 산림청은 축령산 상부의 우물터에서부

터 장성치유숲 안내센터까지 이어지는 무장애 숲길을 하늘숲길과 연결하고, 축령산의 관광자원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삼을 방침이다. 축령산 편백숲은 1956년 춘원 임중국 선생이 홀로 나무를 심어 만들기 시작한 인공 조림지다. 약 157ha 면적에 수령 60년 안팎의 아름드리 편백 250여만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룬다. 삼나무 등 상록수가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뿜어내는 전체 숲 규모는 1150ha에 달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60~70년생 편백나무와 삼나무 등으로 조림된 편백숲은 축령산의 보물이자 장성의 보물"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관광 핫플레이스인 장성호 수변길, 황룡강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조립지인 장성 축령산 편백숲 일원에 숲 위를 걷는 데크길이 새롭게 조성된다. 사진은 축령산 편백숲. (장성군 제공)

고려시대 청자기와 건축물 '태평정'도 있었다



▲지난해 고려청자박물관 서쪽편 건물지에서 발견된 모란무늬 '대평' 명 곡와, 소 명에 모양으로 굽어 있어서 곡와(曲瓦)라고 한다. ◀'대평(대평)'이라고 쓰여진 강진 사당리 청자와.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11월 15일까지 '태평정과 양이정' 특별전 개최

고려시대 청자기와로 지은 건축물이 '양이정' 말고 '태평정'도 존재했다. 청자기와는 최고 권력자만이 누릴 수 있었던 호사의 극치이지만, 세계적으로 유일한 자기 건축재의 완성과 예술작품으로 승화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은 고려시대에 청자로 만든 건축재인 청자와(靑瓷瓦)와 청자판(靑瓷板) 유물을 모아 특별전 '태평정과 양이정'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연다. 청자 건축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은 국내에서 최초다. 이 전시는 지난해 고려청자박물관 서쪽편 건물지 조사에서 '대평(태평)'이라고 적힌 청자기와가 발굴되면서 기획된 것이다. 고려시대 청자와는 '고려사'에 개성에 있었던 '양이정(養怡亭) 지붕을 청자와로 이었다'는 내용

이 있어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왔다. 그런데 양이정이 있었던 수덕궁(壽德宮)에는 '태평정(太平亭)'이라는 정자도 있었는데, 문헌에 언급되지 않았던 태평정의 청자와 사용을 실물로 입증해주는 중요한 유물이 강진에서 발견된 것이다. 고려-조선시대에는 '태(태)'자를 '대(대)'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시대 개경 관련 문헌에 '대평'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는 '대(대평)'이지만 '태(태평)'으로 읽는 것이 옳다. 태평정과 마찬가지로 양이정의 청자와도 강진에서 만든 것을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이정을 뜻하는 '養怡(양이)' 두 글자가 새겨진 기와도 앞으로 발굴조사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자기(瓷器)로 건축재를 만들어 사용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려가 유일하다. 자기 제작기술을 건축재에 접목시키려는 발상의 전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실험을 거쳐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된 기술발전 과정은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청자와는 건물의 규모와 지붕의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청자와가 완성되었을 때 수축하는 비율과 무게까지 미리 계산해 크기를 규격화해 제작했다. 청자판 역시 앞게는 0.4~0.5cm, 두께는 2.5cm 이상으로 만들면서도 편평하게 구울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청자와 사용이 최고 권력자만이 누릴 수 있었던 호사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유일한 자기 건축재의 완성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던 고도의 제작기술을 증명하는 문화유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사유물 중에는 강진 뿐만 아니라 부안에서 생산한 청자 건축재도 있으며, 강진 월남사지 출토 일반 '토제와'와 '청자와'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전시해 청자와 건물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성일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지난해에 발견된 '대평' 명 청자와는 출토지가 분명하고, '고려사' 기록을 입증해주는 자료로서 앞으로 고려청자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이 될 것"이라며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의 자기 건축재를 성공시킨 선조들의 기술력을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병해충 방제 이젠 드론으로" 화순군, 전문가 11명 양성



화순군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인력양성 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11명이 최근 수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지난 5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진행된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교육은 무인 항공·비행 원리·비행 운용 이론 교육, 모의 비행 요령 (이착륙·제자리비행), 삼각 비행과 원주 비행 등 이론과 실기 교과를 적절하게 배치해 진행했다. 바쁜 영농철을 고려해 1기와 2기로 나눠 진행했다. 1기 교육생 6명은 지난해 자격증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 2기 교육생 5명은 오는 14일 시험에 응시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임모 씨는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 병해충 방제에 드론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바쁜 영농철과 겹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을 안전하게 마치게 됐다"며 "병해충 적기 방제와 종자 파종 등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노동력과 노동시간을 줄이고, 농업 방제단을 운영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LG이노텍 광주공장, 담양 고서면에 '이웃사촌 건강꾸러미'

LG이노텍 광주공장이 자매결연을 맺은 담양 고서면에 '이웃사촌 플러스 건강꾸러미'를 지원했다. (사진) 10일 담양군 고서면에 따르면 LG이노텍 광주공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손소독제·일회용마스크·라면 등으로 꾸러진 '건강꾸러미' 250박스(660만원 상당)를 직접 제작해 전달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발열

체크를 위해 400만 원 상당의 체온계를 지원했다. LG이노텍의 '이웃사촌 플러스'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이웃사촌처럼 가까이 함께하며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LG이노텍 임직원은 "직접 꾸러미를 준비 제작하며 봉사자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